

# 世界的 專門防災機關 으로 成長되어야



李 鍾 律  
〈三星 秘書室·部長〉

연구소 設立에 관한 원고 請託을 받고 지난 날을 뒤돌아 보니 8年前 C理事께서 構想하시던 計劃이 생각난다. 當時 우리들은 國內 最初의 防災關係專門研究所와 綜合防災設備 生産工場을 만들어 보자는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記憶이 난다. 그 때는 꿈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이제 그 一部가 現實化되었으니 그 꿈이 吉夢이었음은 틀림 없는 것 같다.

海外研究所를 볼 때 마다 느끼는 꿈이지만 그들의 基礎科學研究가 活發하고 또 施設도 훌륭하며 그 속에서 研究하는 사람들의 진지한 研究熱에 놀람을 금치 못했다. 그 중에서도 우리 生活에 있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불(火災)에 대한 基礎研究와 이와 關聯된 設備·材料等 多方面에서 幅넓게 研究하고 있는 것을 볼때마다 부럽기 그지 없었다. 우린 언제 저 정도가 될 수 있을까 하고.

그후 10여년 지난 지금 회의를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으니 기쁜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라.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防火關係法은 先進國이 自國의 形便에 맞게 만든 것이어서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를 改善해 나갈 科學的 뒷받침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適用하거나 受容해 온 것도 많았다.

또 근거마저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당할 때의 안타까운 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예를들면 첨단산업이란 半導體産業에 參與하면서 設備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危險이 있는지? 一部 斷片的인 情報가 있긴해도 未洽하며 實務者를 안타깝게 한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길 것이고 그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큰 걱정거리였다. 그러나 國內에도 專門研究所가 생겼으니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하나 하나 풀려져 나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그간 입어 왔던 빌린 옷을 벗어 버리고 우리에게 꼭 맞는 옷을 끼워 입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를 土臺로 協會의 主業務인 防災機關으로서 機能을 다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아울러 國力伸張에 맞추어 美國의 FM이나 UL과 같은 世界的으로 권위있는 機關으로 成長되어야 겠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넘어야 할 많은 난관이 놓여 있을 것이 틀림없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 보아도 예견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參與하는 研究員은 開拓者的 정신과 使命感을 가지고 임해야 하며 아울러 協會는 勿論 이 分野에 關係하는 모든 사람의 기대와 힘을 모을 필요도 있을 것이다. \*